



유지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가계저주론자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 '통일성' 개념을 적용해본다면 그들의 주장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개념을 놓치고 있으며 특별 계시의 '점진성'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또 구약 본문 중 일부에 집착하여 해석함으로써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상도 주고 있다.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외에 할례를 행해야 하며 율사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독특성을 약화시켰던 것처럼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효력이 있다고 말하는 가계저주론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미혹할 위험성이 있는 가르침이며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갈 5:9)는 말씀과 연결되는 새로운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계저주론의 번역서로 소개된 책 「뜻 모르게 당하는 고통 풀리지 않는 저주 때문이다」의 저자인 레베카 브라운과 데니 어 요더 중에서 특히 요더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유대 신비주의 결사운동인 '카발리즘' 계열에서 교육을 받고 기독교로 회심했다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들의 책 내용 속에는 유대교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다.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창 12:3a)를 유대인들에게 잘못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1991년 1월 17일)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문에서 혹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은 없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에 당신이나 당신의 가

족들이 혹시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핍박할 방도를 모색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주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같은 책이 유명한 기독교출판사에 의하여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다는 점을 한국교회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계저주론자들은 바울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여 가르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경계한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고 깊이 묵상하고 벗어난 길에서 돌아서야 할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의식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18-20)
 김철홍은 가계저주이론을 사용하는 '성경해석법과 올바른 기독교적 성경해석법의 차이점'을 잘 지적하였다.